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 67호

I 수삼 수출확대 및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II 한국산 신선 고구마, 선박 이용 동남아
연중 수출 가능성 열려

III 파프리카 수출시장 다변화 설명회 개최

IV 對대만 국산 참다래 생과실 수출검역요건 합의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 67호 2019. 10. 25(금)

‘19.9.30까지 농수산물식품 수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70.3억\$

















부류별

신선	가공	수산
  10.0% 986백만불	  0.1% 4,198백만불	  5.1% 1,847만불
+ 인삼류, 김치, 닭고기 - 파프리카, 배, 유자차	+ 커피조제품, 라면, 쌀가공식품 - 궤련, 음료, 제3맥주	+ 김, 굴, 고등어 - 참치, 넙치, 전복

국가별

* 쌀 무상원조 실적('18(20.0백만불), '19(2.0)) 제외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반영

 <div style="background-color: #f8d7da;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중국 </div> <p>▶ 온라인몰 연계 영유아식품 판촉(~11.30)</p> <p>1,188백만불(10.3%)</p>	 김(45%), 라면(14%)  넙치(△24%), 맥주(△2%)
 <div style="background-color: #fff3cd;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미국 </div> <p>▶ 온라인몰 연계 삼계탕 등 판촉(~11.21)</p> <p>838백만불(9.0%)</p>	 김(17%), 음료(9%)  인삼류(△23%), 비스킷(△12%)
 <div style="background-color: #fff3cd;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일본 </div> <p>▶ 대형마트 연계 한국 종합 식품 판촉(~11.15)</p> <p>1,608백만불(2.9%)</p>	 김(10%), 궤련(6%)  참치(△19%), 파프리카(△3%)
 <div style="background-color: #d1ecf1;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ASEAN </div> <p>1,336백만불(2.5%)</p>	 닭고기(87%), 라면(7%)  참치(△5%), 음료(△4%)
 굴(16%), 김치(14%)  궤련(△13%), 인삼류(△8%)	<div style="background-color: #fff3cd;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홍콩 </div> <p>▶ K-FISH 주간 수산물 판촉(~11.30)</p> <p>305백만불(△4.8%)</p>
 김치(17%), 음료(7%)  참치(△11%), 채소종자(△1%)	<div style="background-color: #d1ecf1;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EU </div> <p>413백만불(△6.9%)</p>

☆  : 15%이상 /  : 5~15% /  : 0~5% /  : 0~△5% /  : △5~△15% /  : △15%이하

품목별 이슈

* 실적 : '19. 1. 1 ~ 9.30



“ 김치 ”

◇ 건강 지향적 소비 트렌드에 따라

발효음식인 김치 선호도 증가로 유통 매장 입점 확대 지속

78,335천불(11.4%)

▶ 주요 수출국 : 일본(42,001천불, 0.6% ↑), 미국(10,830, 91.7),
홍콩(3,744, 14.4), 대만(3,512, 2.1), 호주(2,620, 12.8)

“ 조제분유 ”

◇ 베트남 내 프리미엄 분유 수요 지속,

한국 식품 호감도 상승으로 수출 큰 폭 상승



▶ 주요 수출국 : 중국(54,041천불, 0.7%), 베트남(10,025, 57.5)

70,345천불(4.5%)



“ 굴 ”

◇ 한국산 굴 마케팅으로 신규 입점 유통 매장 증가,

교민 시장을 넘어 현지 소비 활발

64,912천불(12.1%)

▶ 주요 수출국 : 일본(29,187천불, 9.3% ↑), 미국(16,591, 26.4), 홍콩(6,345, 15.4)

☆ 자세한 동향관련 내용은 aT kati(www.kati.net) > 수출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은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aT 수출기획부 061-931-0816,7)

농진청 이슈



수삼 수출확대 및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9월 18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수삼 수출 확대 마련 및 수출국 다변화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심포지엄에 농협 등 산업체, 농업인, 유관기관 등 89명이 참석하였으며, 수삼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시장 현안 및 장애요인 해소방안 모색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 농림축산식품부 박태준 사무관(인삼 산업현황 및 정책방향), aT 윤상영 차장(인삼류 수출동향 및 수출확대 방안),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지현 연구사(수삼 수확후 품질관리 기술), 더존무역 안태식 대표(수삼 및 제품 수출 과정의 걸림돌과 해결방안), 경기무역공사 이정준 팀장(수삼 및 새싹삼 수출 사례)

주요 토의내용은 수출 수삼 안전성 확보를 위한 GAP 인증 확대 정책지원과 수출 대상국 기능성 홍보에 대한 과학적 검증 필요성 및 5~6개월 장기 저장기술 개발 실증연구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향후 수출 수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 추진 및 GAP교육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심포지엄 주제발표>



<참석자 토의>

한국산 신선 고구마, 선박 이용 동남아 연중 수출 가능성 열려

농촌진흥청은 고구마에 '수확 후 선도 유지 기술'을 적용하여 선박으로 홍콩과 싱가포르에 수출하는데 성공했다. 고구마는 쉽게 썩어 품질관리가 어려웠으나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수확후 일관 체계화 시스템 기술'을 적용했더니 30일 이상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 수확후 관리기술 : 큐어링(35°C-습도95%,3일) → 세척(염소수 10ppm) → 건조 → 이산화염소 처리 → MA포장 → 팔레타이징

이렇게 수출한 고구마는 홍콩 현지 소비자로부터 품질이 일본산에 손색이 없다는 평가와 함께 판매되었고, 싱가포르에서도 베트남, 대만, 인도네시아산과 비교했을 때 좋은 품질을 유지하며 판매하였다.

이번 수출은 일시·단편적으로 진행하던 항공 수출을 벗어나 가격 경쟁력이 있는 선박으로 일년내내 동남아 시장에 고구마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향후 한국산 고구마의 우수한 품질 알리고 선박으로 더 신선하게 수출할 수 있는 기술 보급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홍콩 판촉 및 시식행사>



<싱가포르 마트 판매·평가>

☆ 농진청 이슈 문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4

식물검역 이슈



파프리카 수출시장 다변화 설명회 개최

국산 파프리카는 '18년 기준 3.2만톤(92백만불)이 일본을 비롯하여 대만, 홍콩 등에 수출되었다. 그러나, 수출량의 99.5%가 일본 시장에 편중되어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파프리카 수출확대 회의에 참석한 생산·수출 업계 관계자들과도 인식을 공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99년 이후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검역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미국, 호주, 페루, 필리핀으로의 수출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19.9.3(화)에는 대전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코파주식회사 회의실에서 파프리카 생산농가(25개 농단)를 대상으로 그동안 미국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방충망 사이즈 크기 확대 등 검역 요건 완화 정보와 새로운 파프리카 수출 시장으로 대두되고 있고 식물검역 협상 체결이 임박해진 중국 수출 시장 진출을 위한 중국 수출 검역 요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검역본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국 수출 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파프리카 수출관계자들이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검역 정보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도 참여하여 농약 안전사용기준 등 관련 정보도 공유하였다고 밝혔다.



對대만 국산 참다래 생과실 수출검역요건 합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2년 대만측에 국산 참다래의 수입허용을 요청한 이래 금년 8월까지 수출검역요건에 대해 대만과 협상을 진행해 오다 대만과의 식물검역 현안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19.9.9.(월) 대만동식물방역검역국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한 회의를 계기로 한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수출검역요건에 대해 양국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합의된 요건에 근거하여 금년 내 양국 관련규정 제정을 목표로 국산 참다래의 대만 수출검역요령 고시 제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